

전력산업에 대·중소기업 「상생펀드」 출범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5월 3일(수) 오전, 한전 등 11개 공기업 및 LS산전, 현대중공업, 효성 등 민간 대기업 사장들과 전력·전기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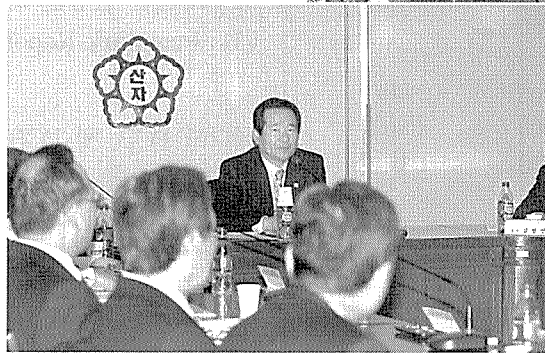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력·전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와 벤처 투자 진흥을 위해 정부가 150억원,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이 114억원 등 총 264억원의 자금을 출자함으로써 향후 시중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500억원 이상의 전력분야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기술 인증제품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지원 및 해외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질 좋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전력, 전기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민간 대기업까지도 힘을 모아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정세균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경쟁이 가속화되고 환율하락, 고유가 지속 등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재원을 확보,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한전, 대기업 등 수요처는 우수 제품을 납품받아 전기 품질 및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며 투자벤처기업의 성공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그야말로 서로 성과를 공유하면서 Win-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번에 결성되는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은 에너지·자원분야에서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사분

전력·전기산업 상생협력 협약식



야 대기업이 직접 출자에 참여한 최초의 상생펀드로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함유한다.

첫째, 그동안 전통, 성숙산업으로 인식하여 IT나 바이오 분야 등에 비해 벤처투자가 저조하던 전력, 전기분야에도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스타 벤처기업”의 출현 가능성 등으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된 점

둘째, 수요 대기업들이 출자에 참여하면서 투자대상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공급은 물론, 기술 및 경영 지원과 함께 판로 확보까지 연계됨으로써 벤처투자의 성공가능성과 상생협력의 여지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셋째, 이에 따라 여타 벤처투자조합에 비해 투자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매력적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시중의 투자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산자부는 투자조합을 운용할 창업투자회사 등 운용주체 선정을 위해 금일(5.4일)부터 5.23일까지 공모절차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접수 회사들에 대해 기간 투자조합 운용실적 및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2개사를 선정하고 하반기 중 조합 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